

루브르 박물관 대낮 7분만에 털렸다

공사 위장 외벽 타고 범행, 왕관 보석 등 훔쳐

루브르 박물관에서 대낮에 벌어진 대담한 보석 절도 사건으로 프랑스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 19일, 경보가 울리자 네 명의 용의자가 두 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파리 도심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사파이어·다이아몬드·에메랄드로 장식된 '왕실의 유산'이라 불리는 귀중한 보석들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프랑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전면적인 수사와 추적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루브르에서 일어난 절도는 우리의 역사이자 자긍심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이라며 SNS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루브르 박물관은 사건 직후 폐쇄됐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용의자 추적과 증거 수집에 집중했다.

■ 7분 만의 완전범죄



▲ 파리 루브르 박물관 외벽에 범인들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사다리차가 현장 보존돼 있다. 사진=AFP/뉴스

사건은 현지시간 19일 오전 9시 30분경 발생했다. 범인들은 트럭에 실은 크레인용을 이용해 루브르 1층의 '아폴론 갤러리(Galerie d' Apollon)'로 진입했다. 이곳은 프랑스 왕실의 보석이 전시된 구역이다. 도둑들은 앵글 그라인더(절단기)를 이용해 창문을 부수고 진입장 두 개를 깨뜨린 뒤 오토바이로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네 명 중 두 명은 트럭을, 나머지 두 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다. 트럭에는 이삿짐 운반용 이동식 사다리가 장착돼 있었으며, 이는 범행 당시 건물 외벽을 오르는 데 사용됐다. 용의자들은 작업복 차림의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트럭 주변에 주황색 안전 콘을 설치해 마치 공사 중인 현장처럼 위장했다. 그들은 트럭을 루브르 박물관 남쪽 세느강변 도로에 세워두고, 사다리를 이용해 2층 아폴론 갤러리 외벽의 좁은 발코니로 올라갔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은 약 6~7분 만에 끝났으며, 범인

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절단기로 경비원을 위협했다. 경찰은 3~4명의 숙련된 절도범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루브르 측은 경보가 울린 채로 범인들이 탈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무부는 도난당한 보석 9점을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유산"으로 평가했다. 라시다 다티 문화부 장관 역시 프랑스 언론에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유산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훔쳐간 물품은 마리 아멜리 왕비와 나폴레옹 1세의 의붓딸 오르탕스 왕비의 사파이어 세트(티아라, 귀걸이, 목걸이)를 비롯해, 마리 루이즈 황후의 에메랄드 목걸이와 귀걸이, 유물형 브로치,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유제니 황후의 티아라와 브로치 등 총 8점이다. 범인들은 유제니 황후의 다이아몬드·에메랄드 장식 금관도 훔치려다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 검찰청장 로르 베르코는 "이 왕관은 손상된 채 박물관 밖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루브르 측은 성명을 통해 "이 물품들은 단순한 시장 가치 이상으로, 대체 불가능한 문화유산적·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 '조직범죄로 수사 60명 투입'

루브르 측은 "조직적 절도 및 범죄 공모 혐의"로 정식 수사가 개시됐다고 발표했다. 사건은 프랑스 국가경찰 산하의 강력범죄전담반(BRB)이 맡아 수사 중이다.

파리 검찰청장 로르 베르코는 "현재 약 60명의 수사관이 투입돼 있으며, 범인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완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범인들이 전문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해외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는 국내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로랑 누네즈 내무부 장관은 "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의 책임자들을 신속히 체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의 예술범죄 전문가 에린 톰슨 교수는 "이런 종류의 절도를 저지르는 도둑들은 흔히 훔친 물건이 추적되지 않도록 몇 시간 안에 해체하거나 녹여 없애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긴 하지만, 출처를 추적하기 훨씬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BRB 소속으로 근무했던 전직 경찰 파스칼 스쿠들라라는 로이터통신에 "수사팀은 CCTV 영상, 통화기록, 지문과 같은 포렌식 증거를 집중 분석할 것"이라며 "24시간 내내 팀을 투입할 수 있고, 장기 수사도 가능하다. 범



▲ 도난당한 마리 루이즈 황후의 보석 세트 목걸이와 귀걸이. 사진=AFP/연합뉴스

인들은 반드시 잡힐 것이라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건 이후 루브르의 보안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연간 870만 명이 찾는 루브르뿐 아니라 다른 문화시설의 보안 강화도 약속했다. 법무장관 제라르 다르마냥은 프랑스 인터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귀중한 보석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 역시 M6TV 인터뷰에서 "그동안 방문객의 안전만 중점적으로 다뤘고, 예술품의 보안은 간과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술품 절도범들의 경향이 '문화적 가치'보다 '즉시 현금화 가능한 물질적 가치'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박물관보안협의회(ICMS)의 레미기우스 플라트 사무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7년 사이 절도범들이 금속, 보석 등 원자재성 물품을 노리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톰슨 교수는 "만약 이번 범행이 숙련된 절도범들의 소행이라면, 이들은 대형 보석을 재연마해 되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역사적 가치가 크긴 하지만, 유제니 황후의 왕관 같은 명품을 그대로 팔면 바로 잡히게 된다. 반면 다이아몬드 몇 개는 훨씬 쉽게 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런 재연마 과정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보석이 회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작업이 성공하면, 범인이 체포되더라도 보석은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물질적 가치 때문에 훔친 물건이 되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루브르 박물관은 20일에도 폐관을 유지하며 "예약된 관람객에게는 전액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Ryan Chang, DPM

▶ 특별 진료 ▶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각종 보험 취급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